



대항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493호

서기 2004년 9월 29일 (음력 8월 16일) 수요일

17

법공양 페이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하나 실천하고 체험해야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벌써 오욕이 무르익어 가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산천초목들도 모두 한 해 동안 결실을 맺기 위해 모진 고난을 견뎌왔다는 생각에 일체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여러 마디 하는 거보다도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날 하는 말이지만 거기에 닿지 않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이지만 그 선장의 마음은 한마음이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통하지 못해 깨우치지 못했다. 즉 말하자면 부와 자가 돌이 아니게끔 상봉을 못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자꾸 한군데다가 몰두해서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당신이 하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굴러놔라 이겁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데가 있느냐고요. 못났든 잘났든 네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너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뿌리를 믿는 것이 가장 급한 일

을 믿고 누구를 믿을 겁니까. 엄밀히 따져본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얘기 하듯이 대신 똥 뭉칠 수 없고, 똥 먹여 줄 수 없고, 잠자 줄 수 없고, 아파 줄 수 없고, 죽여 줄 수 없고, 깨달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말하면 '주인공! 주인공!' 그러는데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고생은 해도 죽는 거 못 봤죠? 아주 끔찍한 결말은 회한을 질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을 할 거는 수술을 하고 수술을 안 해도 될 거는 안 해야죠.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깜짝깜짝할 때 옆에서 잘못하고 잘한다고 그거 잠깐하게 생겼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나왔던 구념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육체를 새 동우리라고 합시다. 새 동우리 속에 새가 들어 있다. 몸이 형성됐으니깐 그 속에 자발이 들어 있는 거지, 지붕도 안 해 놓고 부처님 모시는 거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업신여기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섭섭하게 하지 마라.' 하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죠. 벌레 하나도 살생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생활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 분수도 생각해 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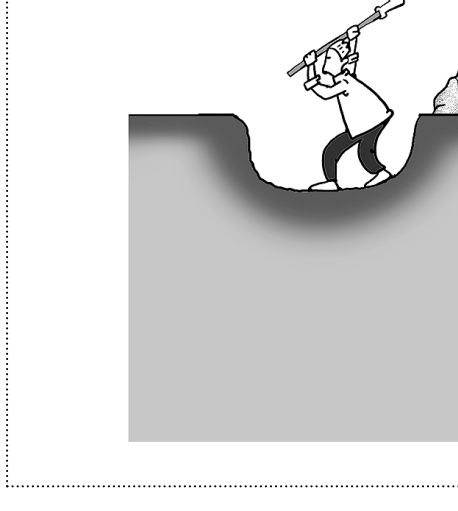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 건데 여러분은 남이 그러한다고 하는데, 남이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이 남 걱정하는 것도 꼬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서, 우리가 살아서 공부하는 거지 죽으면 공부 못해요. 부딪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체가 없거든요.

어려분한테 그걸 잘 알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에요, 파도가 일죠. 그러니까 파도와 잔잔한 물과 같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등한 이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알리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건데 얼마 동안 되더니 이제는 잘 안된다 고 하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물어요.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모르고 그러는 것이 도나간 모르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고 이남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했어도 이게 뭐냐 하고 한탄하지 말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요.

참된 공부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의 도리를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주위에서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된 공부가 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기복이러기보다는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가 늙어서 죽는다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자기 자신을 믿고 가다 보면, 꼭 어떠한 게 잘되다가도 딱 멎고선 안되고 또 답답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반드시 그걸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자기한테 인연이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해 주고, 또 일러 줄 수 있는 사람은 관하라고 일러 주고 그렇지 못할 사람은 그냥 관해 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유, 당신이 일러줘서 참 감사했다.' 하기도 하고 '아유, 나왔다.' 하고 잘됐다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소리도 또 안 하죠.

믿음이 약해서인지...

믿음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인지 그토록 확고했던 마음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자기 자신을 믿고 가다 보면, 꼭 어떠한 게 잘되다가도 딱 멎고선 안되고 또 답답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반드시 그걸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군데다 몰두해서 굴러놔라!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 벌써 본래 깨우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딱 막아 놓고는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도리를 알아야 내가 죽어서도 절대로 떳떳하고 굴러지지 않는다.

그러나만 여러분도 언제나 불쌍한 모든 생명들을 보고 살고 또 그 생명으로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중세계에서만 살 수는 없거든요.

시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도 되는 수가 있죠. 그 한군데를 믿고 모든 것을, 한 뿌리를 믿고 그냥 의지하고 해야 나무가 크게 자라는데 그렇지 않고 나무에서 저거 하다가 저기 가서 한번 해 보고, 조기 가서 한번 해 보고 이리다가는 죽도 밟도 못 되죠.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1천원으로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헌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 1,000원 이상 -헌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